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도입과 지정기부 활성화에 대한 고찰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1. 들어가며
2. 지정기부사업 현황
3. 민간플랫폼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한계
4.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도입과 지정기부 활성화에 대한 고찰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 유형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와 그렇지 않은 일반기부로 나뉨
 -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기부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56개였는데, 이는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25개만 참가한 수치이므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정기부사업 발굴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온라인 모금플랫폼으로는 '고향사랑e음'만 운영되다가 2024년 12월 2일 민간플랫폼이 개방됨
 - 행정안전부는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차 시범 개통은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함
 - 참여 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공감만세는 개별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지자체의 모금함만 보여주는 방식이며, 액티부키와 5개 은행은 자사 사이트에 고향사랑e음으로 연결하는 방식임
- 민간플랫폼 도입은 전문성, 접근성, 지속성을 보완하여 지정기부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식으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것에 비해 많은 지자체가 이용 중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사업 발굴과 운영의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민간플랫폼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음

- 본질적인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 유도방안,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지정기부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함
- 민간플랫폼 도입만으로 지정기부사업 활성화가 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민간플랫폼 도입을 계기로 민간플랫폼 적극적 활용, 지정기부사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개선을 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01

들어가며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
-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 기부자가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나,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됨
 -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기부의 유형은 기부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기부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구분되는데, 지정기부는 2024년 6월 4일 공식시행됨
 -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시에 기부금액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사업의 성격과 일반사업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기부사업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음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잠정치)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 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 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¹⁾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가 대부분이므로 대부분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임
 -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 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98.1%)으로 전년도 51만 건(97.0%)보다 26만 건 증가함
 - 개인당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함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3.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온라인 모금플랫폼으로는 '고향사랑e음'²⁾만 운영되다가 2024년 12월 2일 민간플랫폼이 개방됨
 - 기부금 납부에서부터 답례품 선택, 자동 세액공제 등의 단계가 전부 공식적으로는 '고향사랑e음'만 통해 운영되었는데, 2024년 12월부터 민간 서비스가 개통됨
 - 오프라인으로는 농협만 가능했으나 시중은행으로까지 창구가 늘어남
-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기부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56개였는데, 이는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25개만 참가한 수치이므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민간플랫폼 도입이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 지정기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2) <https://www.ilovegohyang.go.kr/>

02

지정기부사업 현황

■ 고향사랑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며,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³⁾

- 고향사랑기금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되고 있음
- 「지방기금법」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만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특별) 회계 및 타 기금사업 간 상호융통 금지가 원칙임

○ 고향사랑기금은 아래 4가지 목적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함(「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금 활용 분야가 주민의 복지와 복리 증진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법의 도입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변혜선, 2023)

○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이므로, 기금사업을 통해 기부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관계인구⁴⁾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⁵⁾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행위를 통해 지역과 첫 관계를 맺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경험하며, 기금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하는 단계적 관계 형성이 가능함

3) 유보람·신두섭(2023)

4) 관계인구란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5) 김보영(2024)

- 이는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서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고향사랑 기부제는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사업은 일회성 복지사업이 아닌, 기부자와 지역을 연결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해야 함

○ 2024년 2월 20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어⁶⁾ 지정기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도입되었고,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음

-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임⁷⁾
-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 당시에 특정한 목적(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이 어느 곳에 쓰일 것인지 미리 충분히 알리고 모금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음

-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에는 기부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고, 모금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모금이 가능함(예외적으로 기간 조정은 가능)
- 모금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기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심의 및 의결 이후에는 운용 시 별도의 심의가 불필요하지만,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결산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결산(기금존속기한, 정산, 회계출납 등)과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야 함

〈고향사랑 기금 운용 및 관리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

6)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6.3.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 이제 내 고향의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 지정기부사업의 발굴이 중요한데, 법률 제8조의 2와 제11조 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저출생 고령화, 지역의 특수한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하나 기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복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 집중 발굴이 필요함
- 해당 지역에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항구복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재난복구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운영이 가능함
 - 재난의 복구나 회복이 아니라 예방·대비를 위한 기금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7조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발굴은 최대한 지양해야 함

■ 지정기부사업 현황

○ 지정기부 기금사업은 '고향사랑e음'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파악이 가능함

- 지정기부 기금사업은 '고향사랑e음'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 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기금사업 제목과 사진, 지방자치단체, 모금액, 달성을률이 표시됨
- 클릭하면 자세한 사업 배경과 세부내용이 표시됨

〈그림 1〉 지정기부 기금사업 예시



자료: 고향사랑e음(2025년 1월 20일 검색),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 일반기부 기금사업과 비교하자면, '기금사업 소개'를 클릭하고 시·도를 선택한 후 나온 기금 사업명을 눌러 클릭하여 확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분류가 되어 있고, 사업명으로 모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금액 대신 목적, 사업내용, 사업예산 등이 표시됨
- 지정기부 기금사업처럼 배경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림파일을 첨부한 지자체도 있음
- 하지만, 공란이거나 단순히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다수임

〈그림 2〉 일반기부 기금사업 예시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2024년 10월 16일 검색), <<https://www.jeongseon.go.kr/portall>>

○ 2024년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기부사업은 12월 31일 기준,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25개만 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지정기부사업 등록이 활발하지는 않았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정기부사업 발굴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이 전체 56개 사업이 등록되었는데, 한 지자체 당 1~6개의 사업을 등록하였고, 평균적으로는 2.2개의 지정기부사업이 등록됨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지정기부사업 수

구분	지자체(사업수)	사업 수
서울	성동구(1), 은평구(6)	7
광주	동구(3), 남구(3), 북구(2)	8
대전	중구	3
울산	동구	1
경기	안성시(2), 이천시(1)	3
충북	진천군	2
충남	당진시(2), 부여군(1), 서천군(1), 청양군(2)	6
전북	고창군(2), 부안군(1)	3
전남	곡성군(3), 나주시(2), 담양군(4), 목포시(1), 영광군(2), 영암군(3)	15
경남	산청군(2), 하동군(2), 해남군(4)	8
합계	25	56

○ 목표금액과 기부총액, 달성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표금액을 달성한 사업만을(달성을 100% 이상) 목표금액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목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성공적인 예시로 표시함
- 2024년에 등록한 사업 중 기부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모두 16개임
- 전남 해남군이 3개 사업, 서울 은평구, 대전 중구, 경남 하동군이 2개 사업을 달성하였음

〈표 2〉 2024년 목표금액 달성 지정기부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부사업명	목표금액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250,000,000
경상남도 하동군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200,000,000
충청남도 부여군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80,0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아픈아이 케어, 삐뽀삐뽀 돌봄센터	60,000,000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50,000,00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	50,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	48,000,000
경상남도 하동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40,000,000
서울시 은평구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	20,000,000
전라남도 해남군	돌봄공동체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20,000,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 영선고 야구부 지원	20,000,000
전남 목포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	20,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15,000,000
전라남도 해남군	의료급여수급자 냉장고를 부탁해	12,000,000
서울시 은평구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 식사권 제공사업	10,000,000
전라남도 해남군	고독사 위기가구 조기발견 '해남군 안심앱' 운영	5,000,000

자료: 고향사랑e음(2025년 1월 20일 검색), 저자 작성

○ 목표금액 달성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소아·청소년, 유기·피학대 동물, 참전유공자, 자립준비 청년 등 다양한데, 개별로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이 있고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곡성 소아과 사업'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성과 스토리를 부각하였고 2023년 소아과 시즌1을 성공적으로 모금하고 출장진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한 피드백을 주고 있음

○ 2024년 등록된 지정기부사업 중 일부는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종료되었고, 대부분은 2025년까지 계속 모금이 진행 중에 있음

○ 지정기부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됨

- 첫째,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초기이므로 지자체의 사업 발굴 및 운영 경험, 홍보가 부족하여 정착에 시간이 필요함(전문성/접근성)
- 둘째, 발굴보다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함(지속성)
- 셋째, 제도적으로 지정기부사업의 범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제도적 제약)

○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민간플랫폼 개방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앞의 전문성과 접근성, 지속성 측면에 대하여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 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음

03

민간플랫폼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한계

■ 민간플랫폼 도입 경과

-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것을 한국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큰데, 일본에서는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분이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자치단체가 98% 가량 차지함
- 또한, 일본은 민간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⁸⁾
 - 40여 개 민간플랫폼(온라인쇼핑몰) 중에서도 후루사토초이스, 라쿠텐후루사토납세, 사토후루 등 3대 기업이 고향납세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
 - 이러한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는 고향납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민간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창구를 다양화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 기부금 모금플랫폼으로는 농협 창구(오프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온라인)만 운영함
 - 행정안전부에서 민간플랫폼 시스템상 기부자의 주소지나 기부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용 불가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⁹⁾, 각계의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입장을 선회함
-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데 개통 시기별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됨¹⁰⁾
 - 1차 시범 개통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함
 - 2차 개통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음

8) 신승근·조경희(2022)

9) 헬로tv뉴스, 2024.11.26, “민간플랫폼 허용”…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해법될까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065>

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2.1.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준비함

■ 민간플랫폼 현황과 기대효과

○ 은행 외의 민간플랫폼을 개방한 곳은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와 농촌관광 관련 스타트업인 액티부키이며각각 '위기브(www.wegive.co.kr)'와 '놀고팜(www.nolgofarm.com)'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함

-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함
-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의 회원가입을 통해 기부신청 및 답례품 구매를 할 수 있음

○ 참여 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공감만세는 개별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지자체의 모금함만 보여주는 방식이며, 액티부키와 5개 은행은 자사 사이트에 고향사랑e음으로 연결하는 방식임¹¹⁾

- 공감만세(위기브) 방식은 특정 지자체에 대한 집중 홍보가 가능하지만, 기부금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함
- 액티부키와 5개 은행은 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한 243개 모든 지자체와 연결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민간플랫폼 도입은 앞에서 제시했던 전문성, 접근성, 지속성 측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기부 활성화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됨

- (전문성 활용) 기부사업 발굴과 운영 측면에서 기부전문기업의 모금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활용함
- (접근성 강화) 이용하기 편한 플랫폼에서 자연스러운 기부를 가능하게 함
- (지속성 측면) 운영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함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플랫폼보다 위기브의 방식이 지자체의 지정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¹²⁾

- 위기브는 답례품과 기금사업에 대한 정보가 기부자 친화적으로 제공됨

11) 농민신문, 2024.12.02.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에서 편하게…9일부턴 은행서도 가능”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02500779>

12) 농민신문, 2024.12.02.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에서 편하게…9일부턴 은행서도 가능”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02500779>

- 예를 들어, 위기브에는 지정기부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답례품 선택 후 기부하는 것과 답례품 없이 기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고향사랑e음과 달리 위기브는 지자체가 작성한 정보를 재가공해 보여주며, 답례품을 더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기부를 홍보하는 일에 매진함
-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시의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향사랑e음'에는 사업명이 그대로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 '위기브'에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제목으로 표현하여 사업을 선명하게 하고 있으며¹³⁾, 내용에도 추가적인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음
- 민원 대응을 위한 자체 고객센터를 두고 있어서 고객만족 서비스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 2025년 1월 20일 현재, 진행 중인 지정기부사업의 수는 고향사랑e음 65개, 위기브 24개인데, 위기브가 정식으로 개방된 것이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이용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위기브는 등록일을 표시하지 않고 남은 기간만 표시하기 때문에 고향사랑e음의 지정기부사업과 직접 비교는 힘듦
- 고향사랑e음의 2025년 1월 등록된 지정기부사업은 25개, 2024년 등록 사업은 40개임

○ 다만, 수수료의 적정성 측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음

- 다른 민간플랫폼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기브에서는 11%의 일정 수수료가 발생함
- 적극적인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⁴⁾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5% 이내이어야 함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⁵⁾

■ 민간플랫폼의 과제와 한계

○ 현재 민간플랫폼이 일부 홍보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2차 개통 예정기업에는 당근마켓 등 생활플랫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 위기브 외에도 은행권 등 다양한 민간플랫폼에서 플랫폼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3) 8명 사상, 1,827억 피해... 117년만의 폭설 안성을 도와주세요

14) 조선비즈, 2024.12.31., “1000명 대기 중”... 연말정산 앞두고 기부 사이트 접속 급증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2/30/WAALPK3ELL7YYRCOMQYEFLEQ5E/

15) 고향사랑리포트, 2025. 01.06., “11% 민간플랫폼 수수료 적정한가?”
<https://www.gosar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

-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세제혜택과 담례품 정보 중심으로 홍보하고, SNS 중심의 앱에서는 세대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홍보할 수 있음
- 민간플랫폼을 통하여 사업 제안부터 성과 공유까지 전 과정에 기부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으며, 기부자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관계인구를 직접 늘릴 수 있음

○ 민간플랫폼 도입은 전문성, 접근성, 지속성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사업 발굴과 운영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민간플랫폼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음

○ 결국 관계인구 증가와 지속적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자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존재라고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스스로 발굴해 내야 하는 본질적인 부분임

○ 그러므로, 지자체의 현안 문제 관련 사업의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지정기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지자체의 현안 문제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한다면 예산이 작더라도 의미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인구 8만명의 일본 사카이시는 고향납세 기부금의 사용을 시민이 주도하는 기부시민참여제를 조례로 두고 있는데, 주로 생활밀착형의 구체적이고 공감가는 사업을 발굴함¹⁶⁾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전문인력 확보, 민간 전문가 활용, 우수사례공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기금사업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사업 발굴 및 운영에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성공적인 지정기부사업 사례집 발간 및 지자체 간 노하우 공유 등이 가능함
- 일본 총무성의 경우 지자체별 기금사업 우수사례를 8개 분야별로 제시하며, 각 분야 우수사례 60건을 엄선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함
 - 교육·육아, 마을 만들기·스포츠, 문화·역사, 복지, 지역·산업진흥, 관광·교류, 환경, 안전·부흥 8개 분야로 구분함
- 우리나라도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됨

○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지정기부사업 범위 규정에 대해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재난 복구 사업에 대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재 지정기부사업 범위는 주로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임
- 재난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지역에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항구복구가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난복구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운영이 가능하며, 예방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16) 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2023. 10.17., “유연한 발상으로 판 키운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https://www.wegive.co.kr/wezine/detail/367#page1&bbs_ix=367&bbs_type=wezine

- 이러한 단서에 대한 해석이 사업 수립의 시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율적 판단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여러 가지 규제로 경직된 기금 운용 방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지자체와 행안부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종합하자면, 민간플랫폼 도입만으로 지정기부사업 활성화가 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민간플랫폼 도입을 계기로 민간플랫폼 적극적 활용, 지정기부사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개선을 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는 3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정비가 많이 필요함
-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정기부사업을 활성화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김보영,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연구-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 변혜선,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충북FOCUS 214: 1-26, 충북연구원, 2023.
- 신승근·조경희,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2022.
- 유보람·신두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정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 2024.